

5. 음 봉 면

[51] 고 목 나 무

아산군 음봉면 산정리라는 동네가 있다. 동네는 큰 편이나 사람의 수가 적었다. 집들이 흩어져 있어서 나뭇골, 산슴말, 사정이 이렇게 나눈다. 이 중에서 내가 사는 곳은 산정리의 중심부인 산슴말이다. 이 동네의 맨 끝집의 옆에는 아주 오래된 고목이 있다. 동네 어른들 말씀에 이 나무는 지금부터 약 4백년전부터 있었다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이 고목나무 속에는 옛날부터 아주 큰 구렁이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이 구렁이가 동네를 지킨다하여 매년 갖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냈다 한다. 제사를 안 지내면 구렁이가 노하여서 큰 홍수를 일으킨다고 한다. 어쨌든 그 고목나무는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다른 나무보다도 더 푸르게 자라고 있고 그 누구도 이 나무를 베어 내지 못한다고 한다. 고목나무의 웅장한 모습이 우리마을을 돋보이게 하고 흥년이 없는 평화로운 마을을 만드는 것 같다.

[52] 구 리 바 위

충남 아산군 음봉면 동재리 대동 입구에는 구리바위라는 큰 바위가 있다. 수천년이간 긴 세월에 강산도 여러번 변했건만 이 바위만은 그 애달픈 사연을 잊지 못한 듯 말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옛날 이 마을은 대부분의 사람드리 고기를 잡아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해마다 한 해에 많은 고기를 나뎌 안전함을 위해서 용왕님께 자사를 지냈다. 이 마을에는 가실이나 낙랑이라는 두 남녀가 있었다. 이 두사람은 서로 사랑을 해서 장래를 약속한 뜨거운 사이였다. 마을의 어른들이 모여서 제사에서 용왕에게 바칠 처녀를 고르게 되었다. 많은 처녀 가운데 불행히도 가실이 선택되었다. 가실이는 물론 부모님 낙랑 모두가 이 사실에 슬퍼서 어찌할 줄 모르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한편 마을에서는 용왕님께 제사 지낼 준비에 마을 사람 모두 법석이였다. 이윽고 내일이면 가실을 바다에 제물로 바치는 날이다. 낙랑은 사랑하는 가실을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생각다 못해 가실이와 함께 멀리 도망가서 살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가실에게 밤에 도망가자고 말을 하였다. 그렇지만 가실이는 그럴수가 없었다. 용왕님의 뜻을 거역하면 온 마을이 저주를 받아서 멸망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내 비록 죽을지언정 어찌 마을 전체를 멸망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가실이는 오히려 낙랑을 위로했다.

다음날 아침 온 동네 사람들은 모여서 용왕님께 제사를 지내고 이제는 가실을 바다에 던질 때가 되었다.

가실이는 부모님께 하직인사를 올린 뒤 물에 던져졌다.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안타까워 하였다. 이 때였다.

"풍덩"하더니 뭔가가 또 물에 빠지는 것이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낙랑이었다. 가실을 잃고 어찌 살 수 있는냐는 생각으로 그만.....

그 뒤부터는 풍랑을 만나 침몰하는 배도 없었고 고기도 잘 잡혔다 한다.

그러나 이상하게 바다물이 점점 줄어들더니 그곳이 육지가 되었으며 남녀가 껴안고 있는 듯한 큰 바위가 나타났는데 그 바위는 색이 구리빛이고 두드리면 쇠소리가 나서 구리바위라 했다한다. 젊은 청춘남녀의 서글픈 내용을 담고 있는 전설이다. 많은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또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그 아름다운 정시는 이 구리바위와 함께 영원히 전해지리라 본다.

[53] 꾀 꼬 리 성

아산군 음봉면 송촌리 청계도에서 남동쪽으로 1km정도 산길로 올라가면 조그만 절이 있고 그 뒤 산마루에는 성터가 있다. 이 성터를 꾀꼬리 성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옛날에 이 성근처에 남·여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힘도 셀 뿐만 아니라 머리도 비상했다. 여자는 2백년도 더 묵은 느티나무를 뽑았었고 남자는 큰 바위를

들었기에 이 사람들을 대결시켜 누가 더 힘이 센가 내기를 걸고 싶어했다. 많은 사람들이 두패로 갈라져 서로 남자와 여자집에 찾아가 시험할 것을 원했다. 남자는 이 기회에 여자를 누르고 제일인자가 되고 싶었다. 시험을 시작하여 두 사람은 무엇으로 승자를 결정할 것인가 궁리한 끝에 성 쌓기를하기로 하고 여자는 꾀꼬리성을 남자는 주안성을 쌓기로 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날로 해야하는 시험이기에 많이 구경할 수 있어 좋아했다. 이것은 힘뿐만 아니라 재능이 경비해야 하는 것이다. 두 남녀는 서로 지지 않으려고 쉬지않고 잠도 제대로 안자며 성을 쌓았다. 그러다 돌에 짊어 살이 터지고 피가 흐르더라도 꼭 참았고, 비가 오고 눈이 와도 이겨야 한다는 집념 하나만으로 정신없이 성을 쌓아야 했다. 이렇게 성을 쌓아가는 중에도 마을 사람들은 서로 자기편이 이긴다고 우겼다. 이렇게 몇 달이 지난후에 남자쪽이 먼저 성을 쌓고 마을로 내려왔다.

한편 꾀꼬리성을 쌓던 여자는 남자가 성을 다 쌓고 내려가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너무 분하여 치마폭에 싸 안았던 돌을 쏟아버리면서 통곡을 하였다. 그때 치마에서 쏟아진 돌이 산밑으로 굴러 지금도 꾀꼬리성 아래에는 돌이 많고 험한 산골 돌산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끝까지 싸우다가 진 그녀의 장함을 길이 전하기 위하여 그 돌산에는 절을 지어 오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최선을 다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했다면 누구나 언짢지 않을 수가 없다. 하지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높이 평가 받을 만하다.

[54] 목베기 고개

음봉면 월랑리에 장수라는 마을이 있다. 이 마을은 일제시대 일본 사람이 산혈을 보니까 장수가 나올 마을이라고 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곳에서 장수가 나오면 일본에 영향을 크게 미칠까봐 마을 뒷산에 그리 놓지 않은 산의 목을 잘랐다. 그래서 이 마을은 장수가 나오지 않았다. 지금도 산목을 자른 곳이 남아 있다. 이 일이 있은 후로 마을 이름을 장수라 불렀다.

산의 목을 자른 고개이므로 목베기 고개라 한다. 일제시대의 압박으로 수많은 인재가 소리지 없이 사라졌다. 상기고 싶지 않은 과거지만 그 과거를 거울삼아 보다 발전된 한국 세계 선진대열에 당당히 1위로 설 수 있는 빛나는 한국을 만들도록 각자 본분을 지켜 이러한 서글픈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리라 본다.

[55] 북 한 산

지금의 음봉면에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쌍둥이 남매를 낳았는데 낳았을때부터 그렇게 건강하고 힘이 세어 보일 수가 없었다. 그러나 너무도 가난하여 두 아이를 다 먹여 살리 수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눈물을 머금고 사내 아이를 건너 마을 자식이 없는 집에 아무도 몰래 보내주었다. 계집아이는 커 가면서 힘이 남다르게 세어 못하는일이 없었다. 나물르 해도 산더미 같이 쌓아 놓고 무거운 것을 번쩍번쩍 들기도 하여 부모는 물론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즈음 건너마을에도 장사가 났다는 소문님 돌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마을 사람들은 어느 마을의 장사거 더 힘이 센지 대결을 벌여 보자고 하는 결론에 까지 도달하였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극적인 해후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서로를 보는 순간 너무나 자기의 모습과 닮았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사람들도 이상한 일이라며 신기해 하였다. 마침내 두 사람의 장사는 가장 어려운 성쌓기 내기를 하였다. 남자는 폭포가 흐르는 서쪽에서 여자는 새들이 많은 동쪽에서 각각 성을 쌓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경쟁심을 가지고 성을 쌓았으나 시간에 감에 따라 둘은 서로 사랑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성이 다 쌓여 지는날 혼인을 할 것을 맹세 하였다. 이 때 두 사람을 지켜보던 산신령은 절대로 그들은 맺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였다. 남매가 혼인을 할 수 는 없기 때문이었다. 성이 거의 쌓였을 때 신령은 여자의 성에는 수많은 꾀꼬리떼를 날려 보내어 노래 소리에 도취되어 성을 못쌓게 하고 남자의 성에는 물을 내려보내 무더뜨리고 말았다. 두 장사는 너무

놀라서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는데 산신령이 나타나 너희는 남매였는데 어찌 혼인의 인연을 맺으려 하느냐 하고 호통을 치자 그제서야 서로가 너무도 닳은 까닭을 알 수 있었고 어리석은 약속을 한 자신들이 후회스러워 몹시 부끄러워 했다. 그리하여 폭포수 물에 깨끗이 목욕을 하고 그 물을 먹으니 힘이 다 빠져나가 평인의 모습이 되었고, 각각 다른 배필을 찾아 잘 살았다고 한다. 그리고 두 남매가 목욕을 한 폭포수에 찬물이 솟아나서 그 물을 먹으면 피부병과 모든 속병뿐 아니라 마음의 병도 고쳐준다 하여 "냉정"이라 불리게 되었다. 또 두 사람이 성을 쌓던 흔적이 있는데 여자가 쌓은 성을 괴꼬리성이라 하고 남자의 성을 물한성이라 이름하였다 한다.

[56] 부 처 골

음봉면 신수리 1구에 부처골이라는산이 있다. 때는 잘 모르지만 거기에는 부처님을 모신 작은 집이 있었다. 그 집에는 젊은 부부가 아기 자기 하게 살고 있었다. 그러나 그집에는 자식이 없어 늘 걱정이었다. 그 부부는 열심히 부처님께 불공을 드렸다. 그렇게 불공을 드린지 수십일이 지났을 대 어떤 노인이 꿈속에 나 서 당신들이 아무리 노력해 봤자 자식이 없을 팔자를 타고 났으니 단념하라고 하고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남편과 아내는 상심하여 슬픔속에 잠겨 있을 때 부처님을 모신 방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 뛰어가니 아주 잘 생긴 옥동자가 울고 있는 것이었다. 누구의 자식인지를 모르지만 얼른 안고 자기들 방으로 데리고 왔다. 이튿날 부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 부처님 모신 방으로 가니 불상은 온데 간데 없어지고 아기의 고름을 매는 근만이 있는 것이었다. 부부는 그때서야 그 아기가 귀하다는 것을 깨달아 훌륭히 키워 훗날에 나라에 귀한 인물이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그 부부의 지성이 없었던들 그 아기를 얻지 못하였을 것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결코 헛된 말이 아닌 듯하다. 비록 전설속에 나오는 이야기 이긴 하지만

[57] 소 금 쟁 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마을에도 전설이 있다. 우리 마을은 본래가 바다였다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금을 만들어 소금장수를 했고 그것으로 먹고 살았다. 그런데 이 마름에는 배 부자라는 천석갑부가 살았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늘 고심하였고 도 아들을 갖기를 소원하여 왔다. 그런 어느날 한 노승이 그 집에 와서 시주를 부탁했다. 그러나 갑부는 수심에 찬 얼굴을 하고 쌀 한 홉을 가지고 나왔다. 노승은 감사하다고 이사를 하고는 갑부에게 말했다. "실례지만 댁에는 아들이없으시죠?" 그러자 갑부는 깜짝 놀라 말했다. " 예 그럴소 아니 그럴 어떻게 아시지요"하고 놀란 표정으로 물어보자 노승은 갑부에게 "당신 팔자에는 아들복이 없소이다." 라고 말하며 "그러나 아들을 정 갖고 싶다면 금마산 꼭대기에 가서 바다를 가라앉게 해 달라고 부처님께 기도 드리시오. 그리하면 아들이 생길 것이오" 그러자 갑부는 그날로 떡을 해서 지고 산으로 올라갔다. 그리고는 그날부터 정성을 다해 부처님께 기도했다. "자비하신 부처님이시여 바다를 가라앉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나에게 아들을 내려 주소서"그러자 몇 년이 지나서 갑부에게는 아들이 생기고 바다는 차츰 흔적을 감추기 시작하여 육지로 변해 버렸다 한다. 그래서 동네에 살던 소금 장수는 하나 둘 마을을 떠났고 마침내는 그동네에 소금장수는 눈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소금 장수들이 살던 곳이라 하여 소금쟁이라 부르게 되었고 그 옛날 부자의 소원으로 없어진 바다를 그이뤄 해서인지는 몰라도 아직까지도 소금쟁이라 불리우고 있다. 지금은 한낱 전설에 지나지 않지만 사람이 무엇을 하기로 결심하면 반드시 이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58] 어리목 고개

때는 이조말, 어느 허름한 초가에 매일같이 낭랑한 글 읽는 소리가 들렸다. 이 초가는 선조는 벼슬을 지내 으나 가산이 빈궁하여 양반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이름망 양반인 집안이 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이 도령은 과거에 급제하여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리고 선조에

부끄럼없이 나라에 충성하려고 열심히 글을 읽었다. 늙으신 어머니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발덩이도 없이 나의 집 일을 도와 가면서 아들의 뒷바라지 하기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다.

도령은 이런 어려운 처지에서 어머니의 고생을 보고 어떻게 늘 공부에만 열중할 수 있겠느냐고 자기 자신의 일을 시작하여 하였으나 어머니의 굶힐 줄 모르는 성미에 눌러 양반 집안의 대를 잇고 가세를 일으키라는 말슴에 뜻을 굳혀 며칠 있으면 4년마다 열리는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 도령은 더 열심히 글 공부를 했다. 어머니가 어렵게 마련한 노자 몇 푼을 가지고 과거길을 향해 떠났다. 고개를 넘으려 할 때쯤은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다.

주막에 들러 시장가를 면하고 떠나려 하자 주막집 주인이 이 때는 산이 으스스하여 두둑이 많이 있으니 사람이 여럿 모이면 새벽에 고개를 넘으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도령은 지금 고개를 넘지 않으면 과거를 볼 수 없는 입장이기에 고개를 넘을 수밖에 없었다.

고개를 한참 넘으려니 정말로 산적떼가 나타나 삼시간에 도령을 포박, 산적소굴로 끌고 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어 빼앗긴 것은 없으나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처지였다. 구사일생으로 다음날 새벽 도망르 하여 한양에 다달아 과거를 치르니 자우언급제라 고향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리고 가세를 일으킨 것이다.

그후 이 도령은 그 고개에 응거하고 있는 산적떼를 소탕하여 사람들이 안심하고 고개를 넘었다고 한다.

그 후부터 이 고개를 여럿이 엄던 고개라 하여 어리목 고개라 하였다. 임꺽정도 이곳에 응거 활동했다 한다. 이곳은 음봉 삼거리 북쪽에 있는 고개로써 삼거리에 요로원에 거쳐 둔포로 가는 고개다. 나는 이 전설을 듣고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한 도령은 복을 받고 산적들은 죄값을 치른 것으로 본다. 나는 여기서 "인과응보(因果應報)"라는 말뜻이 되새겨 진다.

[59] 연 암 산

아주 오랜 옛날 음봉당에 한 처녀가 홀로 살고 있었다. 처녀가 혼자 산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이없었고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그녀를 고이미라 불렀다. 홀로 살아 외롭지만 아름답기 그지없다는 뜻이다.

고이미는 홀로 살게된 것은 어릴적 부모와 형제를 모두 잃은 까닭이었다. 그러한 고이미이기에 자기 가족을 죽인 오랑캐에 대한 적개심은 말할 나위없이 불타올라 처녀이면서도 무술을 익히고 있어산. 밤에만 나타나는 누군가가 그녀에게 무술을 가르쳤다고 하는데 혹 하늘의 사자가 아닐는지!

그러던 중 다시 오랑캐가 침입을 했다. 그녀는 산으로 몸을 피했다. 서울에서는 유망한 장수를 뽑아 부라부라 올려 보냈지만 드드링 당도 했을때는 이미 오랑캐가 다녀간 후였다.

rnse는 계속 머물러 있었다. 고이미는 장수를 찾아가 군수로 받아 주기를 청했다. 따뜻한 환영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그 장군은 고이미 자신보다 두어 살 많이 보이는 패기 왕성한 젊은이였다. 어느 사인가 고이미의 마음은 그 장수에게로 쏠리고 있었다. 거기에다 장수 또한 애국심에 도취된 그 여인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변방에서의 아름다운 사랑이 합일되려할 때 오랑캐가 또 다시 기세를 몰아오고 있었다. 혼인을 며칠 앞두고 어쩔수 없이 장수는 떠나 가야만 했다. 며칠 후 패전의 소식과 말 함께한 마리 af이 고이미 앞에서 울어대는 것이었다. 미처 사랑을 맺기도 전 장수의 시체는고이미 앞에서 말에 얹혀 있는 것이었다. 고이미는 그를묻어 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생각했다. 가슴에 저머오는 듯했다. 칼이 자신을 마구 자르는 것 같았다. 그날로 그녀는 비수를 지닌 채 적의막사로 숨어 들었다. 코를 골며 자느적장, 그녀는 힘을 다해 감스에 비수를 꽂았다. 그런데 웬일인가? 얼마가 지나고 그녀가 포승에 묶인채 끌려와 있는 앞에 적장이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영동한 장수를 죽인 것이다. 고이미는 분했다. 서러웠다. "신이여! 제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소서" 망나니가 칼을 놀리고 있을 대 갑자기 멈추라는적장의 호령이 들렸다. 신의 "정의"인가.....

그날 밤 옥으로 적장이 찾아 왔다.

"나의 아내가 되어 주지 않겠소?"

비록 흐트러진 차림이기는 했지만 그녀의 아름다움과 초롱한 눈빛 속에는 적개심과 애국심으로 망나니의 칼앞에서도 태연할 수 있었다. 때문에 적장은 그녀를 참하지 않았던 것이다. 거절하는 그녀에게 다음날도 역시 적장이 같은 일을 가지고 찾아 왔다. 무슨 생각에서인지 고이미는 순순히 응낙했다. 죽을 바에는 차라리 호사를 누리겠다는 것인지....

적장이 방에 들어와 잠자리에 들자 그녀는 갑자기 적자의 칼을 들어 그의 가슴에 꽂았다. 하지만 그 순간 적장의 또 다른 칼이 그녀의 목에 와 달고 있었다.

"요망한 계집 같으니!" 적장은 죽어 갔다. 그리고 고이미도.....

얼마후 지도자가 없어진 오랑캐는 이미 오합지졸(烏合之衆) 우리 군의 사기에 오랑캐는 모두 물러가야 했다. 대승리였다. 처녀로 하여금 승리를 찾은 그들은 두 남녀를 합장해 주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 무덤에서 제비 한 쌍이 솟아 날아갔다. 제비가 멈춘 곳은 어느 높은 사의 넓은 바위였다. 전쟁터가 내려다 보이는 높은 산의 바위 아무도 손대지 못할 그릴나 곳이었다. 제비들은 그곳에 동지를 지었다. 그 위에 동지를 짓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 제비들은 멈추지 않았다. 무언가를 추구하듯

이승에 못 이루었던 사랑과 충정, 그들의 이상을 바위에 심고 있었던 것이었을까? 제비가 동우리를 지었던 이 바위를 연암이라 하며 그 산을 연암사이라 불리운다. 이것은 현재 음봉면 쌍용리에 있다. 나는 지금 그 바위를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제비들을 보고 있다. 조용히 사랑속에서 인간을 지켜보고 이땅을 지켜보는 그 제비들을

[60] 음 봉

내가 살고 있는 음봉이란 이름은 본래 아산의 옛 이름이었다 하다.

우선 "음봉"이란 글자를 살 살펴보면 "그늘 음"에 "봉우리봉"자임을 알게 된다. 중학교 때 의일이다. 중학시절에 요즘과 같이 통학을했다. 그런데 추운겨울날 허허벌판에서 집에 오기 위해 버슬 기다리기란 여간 힘들지 않았다. 사정없이 불어오는 바람은 우리로 하여금 오들 오들 떨게 했다. 선생님 너나 할 것없이 몸을 움츠린다. 그리고는 선생님 한분께서 말씀하신다. "음, 춥다. 음봉. 음봉....." 하시며 그늘진 데에 산 봉우리가 있으니 더 추운가 보다고 하신다. 나도 그 말슴에 실감이가다. 친구들과 그 말슴이 우습기도 하여 씩 웃고나서 생각해 보니 정말 이상한 일이다. 어쩌다가 고장이름이 "陰峯"이됐는지 모르지만 가까운 온양과 비교해 보더라도 특히 더 추운건 사실이다. 여름엔 시원해서 좋을진 몰라도.....

우리 주위엔 간혹 이름을 고치는 사람이 있다. 제 이름이 아마 안 좋아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이름을고친다고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지명도 안 좋으면 바꿀 수 있는지는 모르나 선생님께서 우스게 소리고 "陰峯"대신 양지양(陽)자를 써서 "陽峯"이라고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한다.

우리도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에 몸을 떨 때면 왜 "陽峯"이라 안했을까 하는마음도 생겼다. 그러면 혹 따뜻하지 않을까 해서..... 그러나 지형적 특징으로 추운 것을 도리킬 수는 없는 일, 이것은 하나의 이야깃 거리로 흘러 버리고 말았다.

오히려 산에 나무가 우거지고 풍수가 아름다운 음봉이란 말이 더 정답게 느껴지기만 하다.

[61] 이 무 기 굴

음봉면 용화산에 있는 크고 긴 굴로 이무기굴에 얽힌 전설을 다음과 같다.

오랜 가뭄 끝에 다니를 맞이한 으보은논에 물을 대기 위해 삼을 들고 가던 중 주위에서 들려오느이상한 소리에 소리를 찾아 나서니 큰 연못에서 청색이무기와 황색 이무기가 서로 엉키어 싸우는 것을 발견하였다. 놀란 음봉은 호기심에 못이겨 그 싸움을 지켜 보았다. 황색의 이무기는 피를 많이 흘리며 고통의신음소리와 함께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다.

음봉이는 황색의 이무기를 돕고 싶은 갑작스런 마음에서 청색 이무기를 향해 들고 있던 삼을 힘껏 던졌다. 금속성 소리를 울리며 뿔쳐나간 삼은 청색 이무기의 몸에 깊숙히 박혔다.

청색 이무기는 음봉을 향해 저주와 원망의 눈초리를 보낸 후 자취를 감추었다.

잠시후 황색 이무기는 하얀 수영의 노인으로 변해 멍청히 서 있는 음봉에게 다가왔다.

"당신의 덕부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음봉은 갑작스런 변화에 어찌할 줄을 몰랐다.

"저는 본디 하늘의 문지기였답니다. 하루는 낮잠을 자던 중 하늘의 급한 용무로 온 사자를 무을 열어주지 않아 죽게 했던 것입니다. 전 옥황상제님의 벌로 천 년을 이무기로써 지내며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착한 일, 천가지를 해야 마야 죄를 면할 수 있겠지요. 오늘이 바로 그 천 날째입니다. 그런데 용화산의 굴에 사는 청색 이무기가 난데없이 나타나서 저를 방해하는 바람에...." 노인은 다시금 고맙다는 인사를 메아리로 남기고 구름에 휩싸여 하늘로 승천(昇天)하자 음봉은 눈에 물 났을 것도 삼도 잊어 버린 채 집으로 돌아왔다.

2년 뒤 음보이 혼인할 나이가 되어 중매장이의 소개로 혼인이 성립된 음봉은 홀어머니를 집에 남기거 산 너머에 있는 신부집을 향해 떠났다.

그 이튿날 마당을 쓸고 있던 음봉의 어머니는 신부집에서 달려온 하인에게 음봉이 어젯밤 도착하지 않았다는 청천벽력같은 얘기를 들었다. 마을주인과 음봉의 어머니, 신부집 하인들은 용화산을 뒤졌지만 희마한 발자국 만이 무엇에 이르러 간 듯한 발자취가 굴 앞에서 멈춰진 것만을 찾았을 뿐이었다

그 후 마을엔 흉년이 들고 몇 집이나마 농사를 지어 놓으면 누구의 소행인지 모조리 짓밟아 놓기가 일쑤였다. 불행은 겹쳐 용화산을 넘던 사람들이 감쪽같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마을을 쫓발이 되고 아들, 남편을 잃은 여인네들의 울음소리만이 마을을 감싸고 있었다. 한편 음봉의 신부 순례는 홀어머니를 모시며 한번도 보지 못한 남편의 행방을 찾기 위해 뒷뜰에 있는 큰 정자나무에 정성껏 백일기도를 드렸다. 그날도 어머니께 밥상을 차려 드린 후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순간 하늘에서 흰 수영을 늘어뜨린 시이 내려오며 기도를 드리는 순례에게 "하늘에서 당신의 정성에 탄복하여 저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남편은 저의 은인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남편은 용화산의 청색 이무기에게 잡혀 죽음을 당했습니다. 청색 이무기는 본디 성질이 포악한 하늘에서 버림을 받은 신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가져가셔서 청색 이무기의 꼬리에 다십시오. 그 다음엔 제가 맡겠습니다. 이 일을 하기위해선 목숨이 위험합니다."

" 제 걱정은 마십시오. 한번도 보지 못한 남편이지만 이미 그분의 원수를 갚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

" 그럼 이것을...." 신은 순례에게 조그마한 구슬을 내밀었다. 순례가 구슬을 받아들자 시은 구름과 함께 자취를 감추었다. 순간 깜짝 놀란 순례는 잠에서 깨어났다. 치마폭엔 소중한 놓여진 구슬이 있었다.

이튿날 순례는 남장 차림을 하고 어머니께 편지로써 하직 인사를 한 후 용화산의 굴로 향했다. 고생을 하며 굴에 도착한 순례는 심호흡을 하고 손에 쥔 구슬을 놓칠세라 힘껏 쥐고 굴로 들어갔다.

순례가 굴로 들어간 후 뒤늦게 사실을 안 어머니는 마을 사람들과 굴을 향해 다녔다. 달리던 어머니가 굴을 쳐다보니 황색의 용과 고리에 무엇인가를 단 청색의 이무기가 굴위에서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었다. 싸움을 하던 청색 이무기가 고리의 구슬이 터지자 갑자기 기운을 잃은 듯 하늘에서 떨어져 굴에 부딪혀 죽고 말았다. 어머니는 사람들이 말릴 사이도 없이 굴로 들어가 죽어가는 며느리를 등에 업고 나왔다. 어머니는 싸움에 이천 황색의 용에게 며느리를 살려줄 것을 애원했다.

" 아들은 이미 죽은 몸이나 오직 한가지 소원리 면 며느리를 살리는 것이빈다. 제발 이 늙은이의 소원을 들어 주십시오"

황색의 용은 노인으로 변해 두 사람을 살려내고 마을 사람들의 호나송을 받으며 하늘로 승편했다. 그 이후 마을의 흉년이 사라지고 해마다 풍년이 들어 순례네는 물론 마을 사람들이 생활이 윤택해졌다.

그후 마을 사람들은 용화산의 굴을 이무기가 나온 굴이라 하여 이무기굴이라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 굴은 워낙 굴 속이 깊어 그 끝을 알 수 없으며 전하는 바에 의하면 서해로 통했다고 한다.

나는 이 전설을 듣고 약한자를 위해 위험한 일을 해 낸 음봉이의 용감성과 한번도 보지 못한 남편의 원수를 갚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려 했던 순례의 고귀한 사랑은 나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고 있다.

[62] 장 수 바 위

이웃 노인한테 들은 이야기다.

음봉면 원남리에 장수 바위가 있다 한다.

어리목 고개 서쪽 국수봉에 있는 큰 바위로 큰 집채만한 넓고 큰 바위에 말 발굽 자국이 있는데 옛날에 장수가 말타고 올라 갔던 곳으로 말 발굽이 나있어 "장수바위"라 부른다.

옛날 이 마을에는 금실줄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비록 가난은 하였지만 그런대로 행복한 생활이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 남편은 싸움터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처지였다. "여보, 혹시 내가 못 돌아오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곧 태어날 우리 자식 훌륭하게 키워 주오"

" 전 걱정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 열심히 싸우세요. 그리고 우리 자식도 훌륭하게 키우며 당신만을 기다리며 살고 있을 거예요."

그 후 반년이 지나자 남편의 전사소식이 왔다. 부인은 슬픔과 절망에 잠겨 새근새근 자고 있는 어린 자식을 바라보았다. 아버지를 빼 닮은 건강한 체구에 잘 생긴 얼굴 어린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컸다.

4년이 지나던 해 하루는 어머니가 새벽에 밖을 나오는 아들방에서 통탕거리는 요란한 소리가 나기에 이상히 여겨 가 보았더니 통탕거리는 소리는 어느새 그치고 말았다.

그 다음날도 똑같이 아들방에서 통탕거리는 소리가 또 들렸다. 살금살금 가 문구멍으로 보니 소리는 그치고 어린아이는 깊은 잠에 빠진 듯 자고 있었다. 빨래를 하러 갔던 어머니가 갑자기 아들 생각이 나 집에 돌아와 조심스레 옆으로 가 그 아들 방을 보았다. 방안에서 통탕거리던 아이는 인기척을 듣고 얼른 이불로 들어가 자는 체 하였다.

" 애, 궁아 너 그게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밖에 나가서 동네 애들하고 놀것이지"

"어머니 지금부터 제가 하는 행동을 엿보지 마세요. 만약 어머니가 저를 엿보게 되면 전 큰일나요"

안 보겠다는 다짐을 하였지만 어머니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만 자식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아들방을 엿보다 궁에서 들켜 버리고 말았다. 어린 궁은 어머니가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몹시 분대 다시 한번 다짐을 하였다.

그후부터 아들은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야 돌아오는 것이었다. 이상히 여긴 어머니는 숨어서 아들의 뒤를 밟았다. 뒷산으로 가고 있었다. 거기에는 큰 바위가 있었는데 바로 궁이 거리게 올라가 있지 않은가 놀란 어머니는 아들이 다칠까봐 내려오라는 하고 싶었지만 또 약속을 어기는 것이 되어 그대로 보고만 있었다.

궁이 바위를 한번 탁 치니 그 속에서 꼬마 병정들이 The아져 나왔다. 그리고 말 한 마리가 나와 그 말에 궁이 오라타고 지휘를 하며 그 바위에서 군사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너무나 신기하고 재미있어 그만 어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치고 말았다. 그 소리에 깜짝 놀란 꼬마 병정들과 말은 다시 바위로 들어가고 궁은 어머니에게 달려왔다.

그후 어머니는 궁의 행동을 엿보지 않았다.

궁이 18세 되던해 또 다시 큰 전쟁이 있어 궁도 그곳에 참가하였다. 훈련된 자기 병사를 이끌고 능률하게 싸웠다. 백전백승이었다.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라 할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어려서부터 심어져야 옳으리라 본다.

[63] 혼 인 바 위

열심히 일하는 농촌의 풍경!

그 풍경속에 한점 농부의 생활을 지극히 평범하고도 고되다.

봄이 되면 씨를 뿌리느라 논밭을 갈고 거름을 주느라 시간을 보내고 여름 또한 잡초 제거 하라 물 관리하라 고통의 연속이다.

가을이 되면 농부는 즐겁다. 온 누리는 황금빛으로 물들고 풍요로운 열매들이 농부의 손을 기다리니 말이다. 그러나 추수의 즐거움과 함께 농부들 애를 태우는 것이 새의 피해이다. 옛날 음봉면 능오촌의 두메 산골에 적은 땅을 일구며 사는 노부부가 있었다 한다. 그들에게 딸 하나만이 나이가 들어 시집을 보내야 할텐데 워낙 인가가 드물어 혼처가 없는지라 세월은 흐르고 나이는 더해만 갔다. 본인은 물론이요, 그의 노부부는 한숨만 더해갔다. 노부부는 궁리 끝에 산신령께 소원을 빌기도 하고 백일 동안 정성을 다했다. 이런 가운데 가을이 되어 논에는 벼가 누렇게 익었는데 새의 극성 또한 대단했다 한다.

이 노부부는 보다 못해 허수아비도 만들어 놓고 직접 나가 쫓기도 했으나 새는 극성을 부렸다. 세 식구가 교대로 새를 쫓다가 딸의 차례가 되었다. 새를 쫓는데 그렇게 쫓쫓 내리쬘던 태양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먹장구름이 삼킬 듯이 몰려 와 비가 억수같이 오는 것이 아닌가!

이 처녀는 급한 경향에 주위를 둘러보니 바위굴이 있어 웬다구나 하고 그곳에서 비를 피하였다. 그리고는 그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때마침 이곳을 지나가던 한 총각도 비를 피하려 이 바위굴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처녀는 어쩔줄 몰라 안절부절 하는데 이 총각은 처녀를 보는 순간 마음이 끌려 아내를 맞아 들일 것을 결심, 화합하여 부부가 되었다. 그래서 이 바위를 혼인바위라 하게 되었다 한다.

이상 바위굴에 얹힌 이야기를 듣고 보니 천생연분이란 단어가 떠 오른다.

사람들은 항상 우연히 인연으로 맺어져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 이것 저것 살피고 수색하는 등 굉장한 신경을 쓰는데 이에도 우연과 인연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된다. 그리고 어렵게 하는 결혼을 이 바위굴을 통하여 다시 한번 더 보게 된다. 무언가 신비의 바위처럼.....,,